



단지 내 조경(왼쪽)과 조형물(오른쪽 위), 로스트벨리.



창밖으로 펼쳐진 시화호... 여유·동심 담은 명품조경은 덤

아파트의 미학(美學)

호반씨밋 더 프라임

최근 찾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호반씨밋 더프라임'.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약 2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시화나래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해양관광레저 복합 시설인 '웨이브파크'와 '시화나래 둘레길'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호반씨밋 더프라임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826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9㎡A 204가구 ▲59㎡B 197가구 ▲74㎡ 213가구 ▲84㎡ 212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호반'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입주주민을 위해 전 세대에



단지 내 수변공간.

도보권에 초·중 통합 '시화나래 초중학교' 인근에 웨이브파크·시화나래 둘레길 자리 최고 29층 8개동, 총 826세대 규모 조성 전세대 4베이, 시화호 오션뷰 조망 누려

단지내 커뮤니티마당·로스트벨리 조성 산책로·티하우스 마련, 휴게공간 제공

4베이(Bay)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했다. 오션뷰 조망특권(일부 세대 제외)을 통해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화호의 경관을 느낄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씨밋 더프라임은 호반씨밋 더퍼스트 오션의 후속 단지로 알려져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면서 "단지 인근에 시화 스마트허브, 안산 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점도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단지는 입주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됐다. 지하 주차 설계로 보행 동선을 분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든 것. 단지 주 출입구에는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도 있었다.

단지에는 '호반씨밋 더프라임'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푸른 자연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마당'이 조성돼 있었다. 문어를 테마로 한 대형 놀이터 '로스트벨리'가 설치돼 웅장한 느낌을 선사했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담소와 휴식을 통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티하우스 등이 마련돼 입주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변공간이 조성돼 입주주민에게 쾌적한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수변 공간 인근에는 화려한 색채로 구성된 곰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단지 지하에는 입주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주민카페,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웃을 수 있게 고래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됐다. 어르신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경로당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 내 테마놀이터(왼쪽)와 티하우스.